

대행 스님

잘된다 못된다 개의치 말고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눈을 마주하면서 서로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먹을 것이요, 여러분이 질문을 해도 내가 먹고 없는 것입니다. 함이 없이 하는 도리가 바로 이 도린가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러한 도리를 공부하는데 대해서 갈등이 있거나 방황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도 또 이건 대승(大乘)이니 소승(小乘)이니 하면서, 여기는 체계가 잡혔느니 잡히지 않았느니 하고 생각들을 하고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아주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은 생활이 참선이요, 생활이 바로 진리요, 자기 마음을 탐구하는 데 대해서는 앉아 있는 것도 서 있는 것도, 눕는 것도 모두가 참선이 되고 좌선(坐禪)·와선(臥禪)·입선(立禪)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도리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잡히지 않은 듯하지만 일체 만법의 체계가 잡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나가는 거, 질서를 지키고 도의를 알고 의리를 알고 사랑을 알고, 이러한 전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참선이며, 진리를 그대로 탐구하고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승이니 소승이니 하고 잘못됐느니 잘됐느니 체계가 섰느니 안 섰느니 하고 그거 논의하다가는 여러분이 죽으러 가는데 지금 관에 들어가야 할 텐데 어떻게 이것이 체계가 잡혔느니 안 잡혔느니, 대승이니 소승이니 하고 그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죽은 세상 50%를 탐구해야 사는 세상 50%를 같이 귀합을 시켜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세세생생에 끄달림이 없이 윤회에 끄달리지 않게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참된 모습을 탐구하는 데에 지침이 될 거를 생각하면서, 지혜를 얻을 것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어떻게 죽은 세상에 가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죽지 않은 이상에는 죽은 세상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공(主人空)' 하는 것을 예전에 육조(六祖)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품이 스스로 청정함을 내 어찌 알았으리까?" 그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이 스스로 갖추어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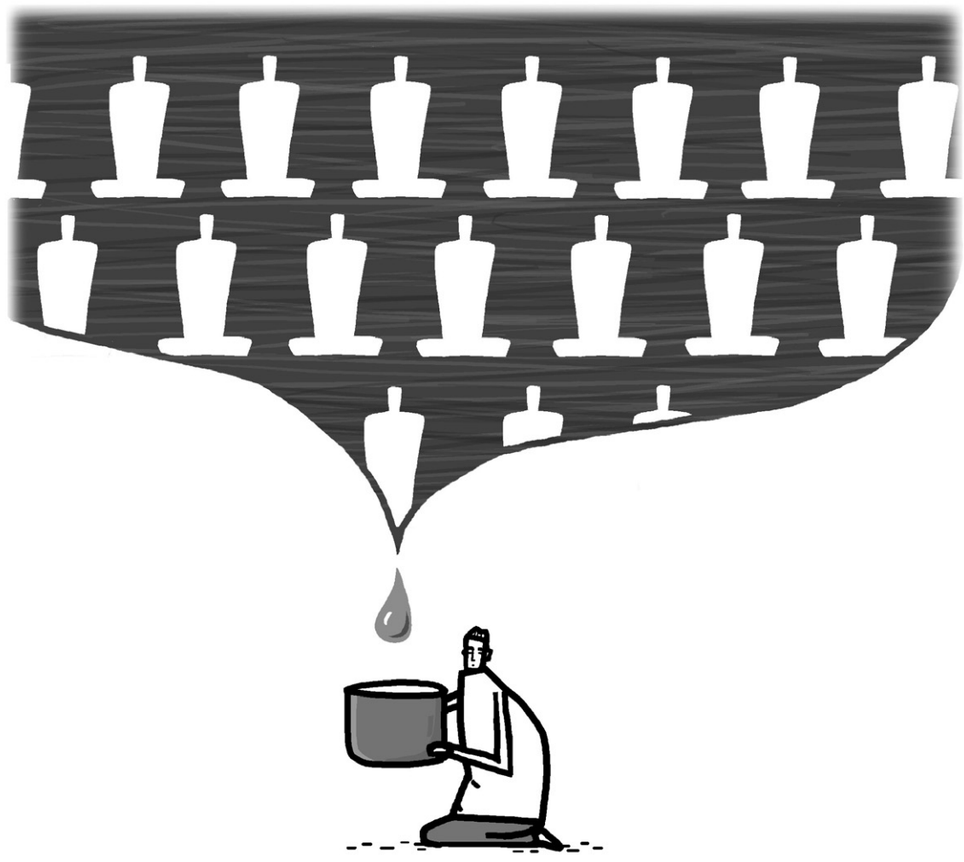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즉, 물러서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구족함을 말하는 거죠. "스스로 내 마음이 내고 들이는 것을" 일체 만법을 말입니다. "내고 들임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주 천지가 인간의 마음에 직결돼 있어서 돌아가는 뜻을, 대천세계·중천세계·소천세계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이치를 다 종합한 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이 스스로서 직결된 거를 알고, 직결된 거를 알았으면 스스로서 자유롭게 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팔 법륜 마크가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사유 사무(四有四無), 사무 사유라고 해도 되고 말입니다. 바로 일체가 인간의 마음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 스스로서 그렇게 청정함을 알고, 스스로서 갖추어 있는 거를 알고, 스스로서 그렇게 구족함을 알고, 스스로서 참,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그 자유자재함을 자기가 알고, 스스로서 그렇게 하는 거지 누가 그것을 갖다 주고 뺏어 가고 이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공부하는 데 대해서 그것이 다 포함된 것을 주인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한마음이라는 이 부처, 부처가 없는 게 부처다 했죠. 한마음이라는 뜻은, 이것은 어떠한 대(對)가 없는 게 한마음이야. 어떠한 그 뭐가 붙지 않는 것을 한마음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 그 한마음의 도리는 돌아(원을 그려 보이시며). 한마음으로 돌아가니까 육체도 모두가 같이 돌아가는 거야, 상대로 인해서. 내가 아니라면 상대가 살 수 없고 상대가 아니라면 내가 살 수 없듯이, 모두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돌아가니까 그 돌아가는 찰나 생활이 한꺼번에 계합이 된 그 뜻을 주인공이라고 한 거라. 그러니 그 주인공은, 즉 말하자면 전체가 한데 합쳐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전체가 합쳐진 그것을 용광로라고도 하고 자가발전소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못되는 거, 나중에 잘된다 못된다 이거는 개의치 말고 용광로에 넣기만 하는 작업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넣기만 하는 작업을 한다면 재생돼서 나오는 쇠는 자동적으로 스스로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놓는다고 해서 잘될까, 못될까 이런 건 걱정하지 말아야 이게 진짜 정통으로 놔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다 일임해서 놓고 난 뒤에 재차 '아이고, 이렇게 놓는다고 저 일이 저게 될까?'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그건 용광로에 정통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생돼서 나오는 거는 생각지 말고 여기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넣는 작업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넣는 작업만 한다면 바로 부설거사(浮雪居士)가 자기 앞의 일을 용도에 따라서 한 거나 같겠죠. 한 여자가 말을 못하고 있다가 19세가 된 후 부설거사를 만나보고 입이 떨어졌다죠. "나는 입이 떨어졌으니까 당신을 놓고는 못 살아. 당신이 나하고 결혼을 안 한다면은 나는 당신이 돌아서자마자 죽어버리겠다." 하니까 부설거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내 앞의 일을, 사람 죽는 걸 건지지 못하고 처리를 못한다면 부처님께 누(累)가 될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 뜻을 어기는 일이니까 그것을 살리고 보자. 앞의 일 치우지 못하고 저 먼데 치우려고 한다고 해서 치워지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그대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씨, 지혜.

그다음에 두 스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깔보고, 아래로 내려다보고, 아집을 가지고 그렇게 막 말을 해도 태연하고 인의롭게 마음 상치 않게 대접을 해주고 한 그 뜻, 지혜, 자비. 그다음 셋째, 그 자비로써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주욱 달아놓고서 "하나하나 깨트려보게." 했던 거. 깨트려보니까 두 스님은 물과 병이 전부 다 그냥 떨어져서 깨졌고, 부설거사가 친 거는 병만 깨져서 떨어지고 물은 응고돼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할 때에 그 두 스님은 참 "오만과 자만,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이론에만 끄달려서, 큰스님한테 돌아다니면서 공부했다는 그 아집만 가졌으니 용서하십시오." 하고서 다시 일어나서 몸을 조아리고 절을 했으니, 보잘것없는 나무꾼같이 생긴 그 부설거사한테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이 몸뚱이는 저 병 껍데기와 같고 그 대롱대롱 매달린 응고된 물은 바로 우리의 성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성품은 변하지 않고 끄달림이 없고 여여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두 분 스님은 부설거사의 제자가

☞ 30면으로 계속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어떻게 죽은 세상에 가겠습니까

☞ 29면에서 계속

되기로 작정을 하고 제자가 됐듯이, 그 마음 가짐가짐이 어느 누구든지 깔보지 않고, 하다못해 생각이 없든지 있든지, 목석이든지 목석이 아니든지, 돌이든 꽃나무든 죽어가는 나무든, 병신이든 병신이 아니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누구를 막론해 놓고 웃으면서 대해줄 수 있는 그 아량과 지혜가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내가 못 배웠을 때 내 모습이요, 내가 수억겁 광년을 거쳐올 때 저런 모습을 하고 거쳐왔지 않나. 바로 나인 것이다.' 이렇게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그 모든 것에서 몰락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아주 높은 산꼭대기, 제일 높은 데를 올라가는데 무엇을 자꾸 짊어지고 갈 바가 뭐 있습니까? 자꾸 놓고 가야지 사람 하나 몸뚱이 올라가는 것도 무거운데 어떻게 자꾸 생기는 대로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 올라갈 때는 다 놓고 올라가십시오, 이겁니다. 조금만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이러면은 그냥 자만하고, 또 나쁜 게 보이고 좋은 게 보이고, 미운 게 보이고 또 예쁜 게 보이고 이걸 일일이 욕심내고, 그 아집을 가지고 나라는 조건에서 영 한 발짝도 떼놓지 못한다면 거기 자기가 갈 수 있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짐도 무거우니까, 이것도 (몸을 가리키시며) 공(空)해서 이것도 놓고 지금 터벅터벅 가는 바 없이 가고 있는데 자꾸 짊어질 게 뭐 있느냐는 얘깁니다.

다 놓고 가다 보면은 맨 상봉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둘러보니까 모두 그 위에서 내려다 보이더라 이거야. 전체를 볼 때 하고 조그만 개별적인 거 볼 때 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 이거야. 전체가 보이는 걸 보니까 '아이고, 저기서 일어나는 것이 여기로 인해서 일어나고 저기로 인해서 여기서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깐,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눌러지고 이쪽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니까 어떤 거를 손을 댈 게 없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잘못하고 잘하고 그것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 무(無)의 세계, 유(有)의 세계를 다 합쳐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죠. 또 동 서가 둘이 아니고 남자 여자가 둘이 아니고, 대승 소승이 둘이 아니요, 어려운 사람 부자 사람 이것이 둘이 아니요, 권세 없는 사람과 권세 있는 사람과 둘이 아니요, 항상 뒤바뀌지더라 이거야. 돌아가더라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는 다 주워 모아서 담아도 담긴 사이가 없더라. 담긴 사이가 없으니 내려와서는 내놔도 내놓은 사이가 없이 내놔지더라.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이 이 도리를 배우는 데는 천금 만금을 주고도 배우기 어려우니 지금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배우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스스로 익히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서 자기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자비를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남의 책을 보고 남의 말을 듣고 지식적으로 머리에 넣어서 그거를 때에 따라선 얘길 하고 쓴다 해도 그거는 헛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經)을 본다 하더라도 백지를 볼 줄 알아야 글을 볼 수가 있고 글을 볼 수 있어야 만법의 근원이 지혜롭게 그 한 글자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 여북하면 '백'은 전체를 말하고 '지'는 지혜를 말한다고 하겠습니까. 글은 우리가 지금 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다 좋다 하는 거를 모른다면 어떻게 부처를 이루겠습니까?

하여튼 망상이라는 것도 놓고, 우정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마음도 놓고 꾸준히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대로 여여하게 갖추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사생결단을 하고 '이놈의 게 왜 안되나?' 모질음을 쓰고, '이게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데 왜 안되나?' 이러면은 이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네가 가다가 "아이고, 다리가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가나?" 하니까, 딱 서서 못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못 갑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탈을 합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일러드려도 놓지 못하고 봤다 하더라도 또 미처 생각을 할 때는 '아이고, 이거 또….' 하고 방방방방 뛰고, 그렇게 뛸 때 또 놓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봤는데도 안된다.' 이거지. 안된다는 생각까지도 놔야 될 텐데 그걸 놓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아이, 그거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하늘이 무너져서 짜부러져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아이,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살죠." 이러는데 그 사람은 아주 살게 돼서 괜찮고 아, 이건 살려고 바둥바둥하고 '왜 놓는데도 그렇게 맡기는데도 안되느냐. 주인공, 살려주시오.' 이러면 오히려 안된단 말이야. 그거는 어리석은 행이 아니냐 이거죠. 해달라면 벌써 둘이 되는 거야. 해달라긴 누구더러 해달랍니까? 내 마음이 안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누구더러 해달라 하는 겁니까? 그래 아까 얘기했듯 내 마음이 스스로 청정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마음이 스스로 그렇게 갖추어가지고, 일체 만법을 갖추어가지고 있다는 걸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있기 때문에 구족한 걸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있기 때문에 일체 만법을 들이고 냄을 어찌 알았으리까? 능히 말입니다. 이것이 스스로서 자기 것이 돼서 스스로 당당하고 여여하게 이렇게 펴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치시기를 말입니다, 이렇게 목마른데 어느 누구가 물을 '먹지 마라.' 하는 사람 있습디까? 내가 목마르면 먹을 수 있게끔 하고 마음을 내서 육체를 움죽거리게 하고, 발을 떼어놓게 하고….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갖추어져 있는데, 깨쳤다 깨치지 못했다 하기 이전에. 목말라서 물 마시는데 누구가, 마시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구족합니까, 이게. 여여하고 말입니다. 갖추어 가지고 있고.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을 스스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왜, 어려워서 나는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까? 해보지도 않고 느껴보지도 않고. 그리고 욕심이 앞서서, 나라는 조건이 앞서서, 애착이 앞서서 말입니다.

요새는 값싼 사랑들을 하기 때문에 울고 짜고 모두 그러는데 값싼 사랑을 해서 값싼 눈물을 흘리지 말라 이겁니다. 한 눈물을 흘릴 때도 한 방울의 눈물이 온 바다를 이룰 수 있고, 온 바다를 한 눈물 방울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이 살 수 있게끔 한다면 자유자재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우주 천지에서 여러분한테 열쇠를 맡길 것입니다. 그건 누가 주는 거냐. 그런 게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따 얘기하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질문자1(남): 9월 5일 낮 12시경에 스님 친견하고 지금 다시 친견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제게 참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9월 8일 오후 8시 32분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다시 스님 앞에 왔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불교 신자라고 자부할 수도 없고, 불교에 대한 아무런 예절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마음으로 스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는 거의 대부분의 동서양의 철학 서적을 거의 다 간파했다고 자부하고 왔지마는 스님의 한 말씀은 모든 개념을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상을 치르고 산소에 모시고 와서 느낀 것인데 그중에서 스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스님이 수행 중에 무덤을 우주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우주의 근본이기 때문에 자주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무덤을 우주의 근본이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설법을 하시는 중에 "우리가 사후의 세계를 50%를 알 때에 보다 높은 산의 위치에 올라가서 뭔가를 알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라는, 사후의 세계가 귀신을 의미한다면은 저희들이 사후의 세계를, 무덤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저희 중생들에게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또 대부분의 자손들이 부모를 산소에 모실 때 아버님을 좀 더 좋은 자리에 모시고 싶어하는 자식들의 헛된 소망이 있는데 산소를 잘못 건드렸을 때 그 자손에게 어떤 해가 미친다는, 세상에 떠도는 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사실 여부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묘지는 그 산의 산수라고도 하고 묘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둥글게 묘지를 댔죠? 그래서 거기다가 부모를 모시고 본 사람은 누구며 보여준 것은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이전 이후를 다 합쳐서 본 사람은 지금 산 사람이고, 보여준 거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번째 가서 둥그렇게 돼 있는 것은 전후가 한데 합쳐진 바로 원 도리라고 볼 수밖에 없죠. 천상천하가 다 한데 합쳐서 뭉쳐진 도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컵을 드시고) 산소라면 여기도 우주개공이 담겨 있다, 이런 거죠. 이거나 이거나, 둘이 아닌 까닭에 바로 본 놈도 둘이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묘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고 둘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원심력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이고. 생각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죽은 사람, 산 사람도 둘이 아닙니다. 껍데기 병만 깨졌을 뿐이지 그 근본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움죽거리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게 없습니다. 물이 얼음이 됐다가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됐다가 이럴 뿐이지, 얼음이라고 이름만 불렀을 뿐이죠. 그래서 그것도 죽었으니 송장이라고 할 뿐이지 그것이 둘이 아닌 것입니다, 물과 얼음이 둘이 아니듯.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천지가 한데 계합이 된, 본 사람이 있고 그것을 뭉쳐놓은 게 있고 하니 그게 둘이 아닌 까닭에, 삼심(三心)이 둘이 아닌 까닭에 전체가 한데 (원을 그려 보이시고) 합쳐진….

우리가 이 도리를 어떤 때는 부처님의 도량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도량은 어디고 다 도량이죠. 그래서 "부처님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 소리 않고 뚱그렇게 그냥 그려놓고는 말았더라. 어떤 사람은 뚱그렇게 그려놓고는 침 한 번 뱉는데 떨어질랑말랑 할 때 점 하나 찍어놓더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것도 저것도 묵묵히 있었던 분도 있었죠. 어떤 분은 송장을 타고 빙글빙글 서너 바퀴를 돌다가 그냥 훌쩍 나갔고요. 그러니 그것을 말로 형용할 수는 없으니 그대로 그런 것이고. 아까 끄트머리에 그랬죠. 우리가 그 마음이 채워지면은 스스로 알 것이니까 본 사람은 거기 누워 있는 사람, 묘지가 한데 합쳐진 것도 사람이 이렇게 모아놨고요. 마음이 한데, 이전 이후가 다 한데 모아진 셈이나 똑같은 거죠. 그거를 아시면은 원심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걸 잘 탐구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주인공에 놓고요.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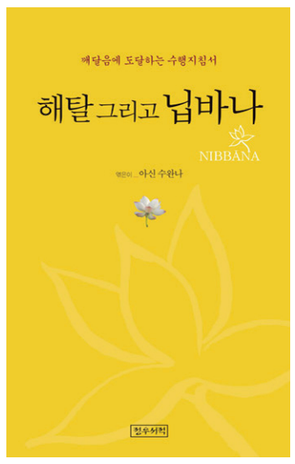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89년 9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어느 누구든지 깔보지 않고
> 병신이든 병신이 아니든 똑똑하든 똑똑지 않든
> 누구를 막론해놓고 웃으면서 대해줄 수 있으며
> '내가 못 배웠을 때 내 모습이다. 바로 나인 것이다.'
> 이렇게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
> 바로 모든 것에서 몰락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도달하는 수행지침서

해탈 그리고 닙바나 화제의 신간!

붓다가 전하는 수행의 비밀! 이 시대 최고의 수행지침서!
누구나 쉽게 열반에 이르는 알기 쉬운 불교수행법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붓다의 머리카락과도 같아서 수행자들에게는 진여의 강을 건너는 뗏목이 될 것이요. 범부중생에게는 감로수가 될 것입니다
– 전 해인사 주지. 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태종사 조실 도성영공. 추천사 중에서–

한국의 선불교 전통에서 오랜 세월 수행하다가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접하고 비로소 안심입명의 숨을 쉬게 된 스님의 진솔한 사연을 접하는 것 같아 깊은 감동이 울려옵니다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퇴현 전재성박사 추천사 중에서–

아신 수완나 편저 / 신서판 / 254쪽 / 8000원

[출판사 서평]
역사와 마음 닦는 책을 거울, 보감이라고 하였는데, 이 책이야말로 현대판 불교 명심보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편견 없이 바라보고 가르침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한 구 한 구, 한 쪽 한 쪽 독서하며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해탈과 닙바나에 이를 수 있다.

구입문의 : 정우서적 (02)765-2920

사람을 찾습니다



• 이름 : 이종협
• 나이 : 35세
• 특징 : 키 180cm 가량, 안경 착용

위 사람을 보셨거나 알고 계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 종협아! 엄마가 많이 보고 싶다.

연락처 010-3813-8115
016-515-0778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